

영 김, 연방의회 한국연구모임 공동의장 ... 한국계 최초

“한미 공동의 우선 과제를 증진 위해 협력 방법 모색할 것”

영 김(공화, 가주 39지구)연방 하원의원이 미 의회 내 한국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 의장을 맡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전직의원연맹(FM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미 국회의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계 의원이 의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당적 의원 모임인CSGK는 2018년 2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후원을 받아 20여명의 의원 모임으로 창립됐다. 현재는 50명가량의 회원이 연구 활동을 비롯해 한국 정부 당국자, 선출직 공무원과 교류하고 있다.

연방의회에는 CSGK 외에 일본, 독일, 유럽 관련 모임 등 총 4개의 FMC가 관여하는 의회연구모임이 있다. 각 모임은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명씩 총 4명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하원 공화당



▲ 영 김 연방하원의원. 사진=타운뉴스DB

몫으로 공동 의장 자리에 올랐다. 나머지 공동 의장은 브라이언 샤프츠(민주), 댄 설리번(공화) 상원 의원과 아미 베라(민주) 하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미 양국 관계에서 중요하고 초당적인 논의를 촉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양국 관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양국 간 공동의 우선 과제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는 것을 돕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동 대표인 베라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와 평화의 핵심축으로 남아 있다.”며 “우리 관계는 안보 협력을 넘어 깊고 지속적인 국민 대 국민의 유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김 의원의 활약을 기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비즈니스 용도의 상업 부동산 구입 시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SBA 504 용자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원결의안(HR) 1490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의에 빠진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평통 OCSD협의회, ‘북한 청소년에게 자전거 보내기’ 캠페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샌디에이고지역협의회(회장 오득재, 이하 민주평통)가 ‘북한 청소년에게 자전거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5일 민주평통 측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6시 부에나파크 더 소스 몰에서 ‘북한 청소년에게 자전거 보내기 운동’ 발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었다.

오득재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19기 민주평통 출범 직후 바로 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북미 관계 급변이라는 변수를 만나 일정을 연기했다.”면서 “19기 임기가 오는 8월 말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3일 임원회의를 통해 일단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 추후 북미 관계가

호전되면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자전거를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모금 목표액은 30만 달러이다. 모금된 돈으로 자전거 3,000대를 북한에 보낸다는 것이 민주평통 측의 계획이다.

후원금은 송금 애플리케이션인 벤모(Venmo), 켈(Zelle), 페이팔을 이용해 보낼 수 있다. 수취인은 ‘TONGIL3000’이다. 수표(PAY TO THE ORDER: TONGIL3000, 주소: 9828 Garden Grove Blvd., #210, Garden Grove, CA, 92844)로도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714) 537-6919

샤론 퀴크-실바 가주 하원의원, 노인 사기 관련 세미나 개최

샤론 퀴크-실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민주, 65지구)이 지난 5일 화상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노인 대상 각종 사기 예방 세미나를 열었다.

샤론 퀴크-실바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은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노인 대상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주 정부 차량국, 보험국, 소비자보호국, 메디칼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해 노인 관련 다양한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 등을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하며 노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샤론 퀴크-실바 의원 측은 “노인은 사기범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는 1순위 계층이다. 노인 5명 가운데 1명이 사기 피



▲ 샤론 퀴크-실바 의원(오른쪽)과 박동우 보좌관. 사진=샤론 퀴크-실바 의원 사무실

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면서 “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 1. 풍부한 실무 경험
- 2. 정확한 회계 업무
-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빠른 환불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UC San Diego졸업
미 해양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역임
Member of CS

714.522.1120 FAX. 714.522.11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